

지역 소식통

고창군, 무료 경로식당 이전 개관

고창군이 지역 어르신들에게 균형 잡힌 식단과 정성을 담아 식사를 제공하는 '무료 경로식당' 개관식을 가졌다.

기존 경로식당은 건물이 노후화되고 주방시설이 협소한 뿐만 아니라 도시락을 배달할 때도 도로의 거리가 멀어져 있어 기상악화 시에는 도시락 운반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이번에 새롭게 경로식당을 마련했다.

무료 경로식당은 사회복지 법인 한울 안에서 건물을 매입하고, 고창군에서 리모델링 사업비를 지원해 총 사업비 3억 6000만원을 들여 보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어르신들에게 든든한 끼니를 제공하게 됐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따뜻하고 살아있는 복지, 공감할 수 있고 먼저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덕천면, 지역 현안 사업 발굴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개최

덕천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지난 5일 면사무소에서 지역 현안 사업발굴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를 가졌다.

회의에서는 도계리 비포장 농로 포장 공사를 비롯한 3개 사업(사업비 총 1억 원)을 선정해 2018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시민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이날 지역위원들은 모두 5개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타당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3개 사업을 선정했다.

/정음=김대환기자

수성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웃 돌봄 사업 주민 간담회

수성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4일 정음사회복지관 강당에서 주공차이파트 이웃 돌봄 사업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사업은 혼자 사는 어르신과 장애인 중증의 질환자 등을 안전하게 돌봄으로써 안심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목적이 있다.

사업은 수성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모사업 예산으로 진행한다.

간담회에는 사업 참여 희망자 30여명과 공동체활성화센터 관계자 등 참석 앞으로의 토론의 일정과 방향 등을 주제로 토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정음=김대환기자

정읍 연지아트홀 걸어가길

간판개선사업 최종 용역 보고회

의견 검토후 이달 중 실시설계 완료... 본격 사업 추진 나서

정읍시는 5일 연지아트홀 걸어가길 길 간판개선사업과 관련, 디자인 개발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김생기 시장 주재로 열린 최종 보고회에는 관련 전문가와 접포원 대표, 업무 관련 과장들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은 정읍역 사거리에서 이달 개관 예정인 연지아트홀에 이르는 약 750m 구간 중 정읍역 사거리~정읍 터미널(200m) 구간에 설치된 50여 개의 간판을 정비하는 것이다.

지난 2월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되는 것으로, 모두 2억원(도비 40%, 시비 60%)이 투입된다.

사업은 노후되고 무질서하게 난립돼 도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도로변 간판을 정읍의 역사·문화적 특성을 살린 조화롭고 아름다운 간판으로 개선한다는데 목적이 있다.

사업 추진과 관련해 시는 지난해 도시재생대학 교육을 통해 연지상가 상인회의 역량을 높이고 자생력을 확보했으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만들었다.



올해 초에는 옥외 광고물 정비 시범 구역 지정과 함께 10명으로 구성된 작업추진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생기 시장은 "이번 사업은 정읍에 질서 있는 간판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는 첫 단추가 될 의미 있는 것이다"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으로 가로 환경을 아름답게 탈바꿈시키고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하는 물론 원도심 활성화를 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음=김대환기자

부안읍, 화재피해가정 맞춤형복지 행정 펼쳐

봉사회, 그을림 제거·도배·장판 교체 등 환경정비

부안읍 맞춤형복지팀이 화재피해가정에 피해복구 및 주거기구 등을 지원하고 화재로 피해를 입은 가정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도움을 주고 있다.

이를 위해 부안읍은 지난달 25일 양계장 인근 생활권내에 갑작스런 화재 발생으로 사유정비와 생활공간이 전소돼 절망에 빠진 유모(59세)씨에게 민·관 협력으로 주거환경 개선작업 및 긴급복지(생계비) 지원 등 맞춤형 복지를 실시해 삶의 재기를 도왔다.

유모씨는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 등으로 거래가 감소하고 자녀들의 취직준비 뒷바라지 등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이번 화재로 삶의 절망감을 더욱 부추겼다.

이에 따라 부안읍 맞춤형복지팀·주민복지팀이 소분행정을 추진해 부안군에 긴급복지(생계비) 지원 및 대한적십자사 부안군지회에 긴급구호물품 지원을 신속하게 연계했다.

이후 대한적십자사 부안읍봉사회 회원 10여 명이 피해가정을 방문해 긴급구호물품을 전달하고 그을림 제거, 도배·장판 교체, 청소 등 환경정비를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부안읍 맞춤형복지팀도 부안군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협의회, 부안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간단체와 협력해 피해복구 및 주거기구 등을 지원하고 화재로 피해를 입은 가정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조용한 부안읍장은 "누구나 예상치 못한 일로 어려움에 처해 복지 사각지대 위에 놓일 수 있다"며 "민·관이 협력한 맞춤형 복지로 신속하게 위기를 대처하고 행복한 주민으로 거듭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고창군 어업지도선, 구시포항으로 이전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구시포항에 고창군 어업지도선 정박을 위한 어선 계류시설 부잔교를 도비 2억원 포함 총 사업비 3억원을 들여 준공하고, 고창군 어업지도선을 겨울철에서 구시포항으로 이전했다고 5일 전했다.

그동안 고창군에는 어업지도선이 정박할 계류시설이 없어 부안군 격포항을 사용해 왔으나 지난달 말 고창군 구시포항에 계류시설 부잔교를 준공했다.

고창군 어업지도선이 구시포항에 본격적으로 정박하면서 불법 어업 지도단속과 해양사고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군은 또한 구시포항에 정박하고 있는 어업지도선 전보 208호가 1994년 7월 건조돼 유지비가 많이 들고 안전 운항이 우려돼 총 1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15톤급, 선외기 기술업지관, 속력 30노트 규모의 신규 어업지도선을 내년 6월까지 대체 건조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 관광객 안내 서비스 '호응'

문화관광해설사 동행 사계절 테마형 시티투어 등 운영

정읍시가 정읍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문화·관광 자원에 대한 상세한 안내로 호응을 얻고 있다.

관련해 시는 문화관광해설사 18명과 통역요원 6명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사계절 테마형 시티투어와 '꿈나무 시티투어'에도 동행, 관광자원별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자세하고 정확한 설명을 통해 관광객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내장산국립공원과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김명관 고택, 무성서원, 구파백정기의사기념관, 피항장에서 연중무휴로 활동한다.

또 통역안내원은 정읍역종합관광안내센터, 내장산관광안내소에서

통역 근무를 하고 있다.

한편 사계절 테마형 정읍시티투어는 정기투어(매주 토요일 10시 30분 정읍역 앞 출발)와 단체투어(로 진행)한다.

희망지는 위탁업체인 아성고속관광(☎063.538-6000)에 신청하면 된다.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꿈나무 시티투어는 연 초에 지역 내 학교에 공문을 보낸 후 신청을 받아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매주 금요일 운영한다.

문화해설사는 A코스와 역사를 체험하는 B코스로 운영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관광개발과(☎539-5234)에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주차표지교체 발급

고창군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주차표지(주차가능)를 전면 교체해 발급하고 있다.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명칭도 장애인 자동차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됐으며 모양도 사각형표지에서 원형표지로 변경된 바 있다.

이들 장애인 본인용과 보호자용이 쉽게 구분 되도록 색상도 달리해, 전면 교체했다.

오는 8월말까지는 기존표지 교체기간으로 기존표지와 병행 사용이 가능하지만 9월 1일부터는 변경된 원형표지 부착차량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하며, 이를 위반 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변경된 주차가능표지로 교체하려면 기존 주차가능표지,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사본, 신분증, 복지카드를 지참하고 주민등록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장애인의 거동불편 등의 사유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는 대리 신청·수령도 가능하며,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반드시 기존 주차표지를 반납해야 한다.

현재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아 사용 중인 지자체에 하지관, 적추장에 6급의 경우에 지난 2010년 1월 1일 이후 '보행상 장애 기준'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번 주차표지 교체 시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 주차불가표지로 교체 발급된다.

군 관계자는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있으나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단속과 점검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며 "9월 이후 변경된 원형표지 미사용(미부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표지 미교체자에게 안내 독려, 교체 안내문 홈페이지 게재,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8월까지 기존표지 보유자가 교체 완료하도록 홍보 등 전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It features images of wine bottles, gift sets, and a cartoon bear mascot. Text includes 'Mulberry Wine', '부안강산뽕주', and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It lists various gift set options with prices and quantities.